

## 주일낮 예배 순서

시낭독:	시9:9-11
영광송:	6장
성삼위송:	3장
교독문:	16번
경배송:	36장
기도:	김용희집사
찬양:	413장(내평생에가는길)
성경:	시23:1-6
봉헌:	314장
기도:	오명현 목사
말씀:	<b>나는 주님의 어린 양</b>
환영: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소식:	
송영:	5장
축도:	오명현 목사

## 주일오후 예배

<b>시간 오후 2시</b>		<b>인도:오명현목사</b>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85, 342장	다같이
기 도		이주휘형제
성경봉독	요14:25-31	
특별연주		
축 도		오명현목사

※다음주 기도 : 이은희집사 ※

## 수요예배

<b>시간 저녁 8시</b>		<b>인도:오명현목사</b>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405,406장	다같이
기 도		백현숙사모
성 경	행1:1-5	
축 도		오명현목사

※다음주기도 : 최덕임 사모 ※

###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

#### ▣ 전도부

- 남전도회
  - 회 장: 서재호 집사
  - 부회장: 김용희 집사
  - 회계 서기: 이정환 집사
- 여전도회
  - 회 장: 함점순 집사
  - 부회장: 황혜순 집사
  - 서기 회계: 김부자 집사

#### ▣ 교육부

- 유초등부
  - 부장집사: 이정환 집사
  - 교 사: 김은혜, 오성원
- 중고청대부
  - 부장집사: 정재용 집사
  - 교 사: 김민수, 예련, 국은영, 이요셉(중등)

#### ▣ 예배부

- 예배반주: 김부자, 국은영, 오성원
- 찬 양: 이요셉(팀장) 국은영, 오은영, 예련
- 찬송지휘: 서재호

#### 주일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0:30
유초등부	11:45
중고등부	11:45
대학청년부	11:45
오후찬양예배	14:00



#### 함께하는교회표지

-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순전한 말씀 선포
- \*개혁주의 신앙 실천
- \*거룩한 사귄과 헌신

#### 바이블 아카데미

1. 성경대학 운영
2. 기독교 사상 세미나
3. 회복 사역 센터 (이단상담 & 지유)

####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오명현  
주소: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40-31 ☎(063-905-3355)  
이메일: dasisijak@hanmail.net

2010년 4월 18일

## 가슴 저미는 사고들을 보면서

오명현목사

10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폭설의 찬 기운이 아직도 봄을 가로막는 듯하다. 그래도 봄은 오겠지 산 언덕을 기웃거리 보노라니 너무 성급했던 꽃잎은 이미 퇴색된 채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밤의 문의 사건이 서해안에서 일어났다.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이 두 동강난 채 물속에 가라앉았다.

원인도 모른 채 생사의 갈림길에서 58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46명은 선 채 물속에 가라앉았다. 서해안 바다는 46명도 모자랐는지 실종자를 구조하던 한우호 준위와 쌍끌이 어선도 집어삼켰다. 출렁이는 파도만이 비밀스런 사연들을 육지로 보내주지만 가족들은 캄캄한 밤 바다만 쳐다보며 통곡만 할 뿐이다.

한창 피가 끓는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친 그들의 넋을 산 자가 아무리 절규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위로가 되겠는가. 차가운 물속에서 이미 생의 이별을 고한 주검들이 20동안 군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사명이란 저런 것 이구나 하고 숭고함이 느껴진다.

20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가족은 통곡하고 국민들도 오열했다. 고서 대호 하사는 미니 홈피에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남겼는데 그는 거짓말처럼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달콤한 신혼 생활을 꿈꾸던 예비신랑, 부모도, 형제도, 갈 곳도 없어 해군에 자원 입대한 젊은이, 서른 번째 생일과 스무 번째 생일을 차가운 물속에서 맞은 이들, 못 다 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남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얼친 데 덮친 사건들이 연이어지고 있다. GOP에서 근무하던 군무자 송진 채 발견, 야간 초계비행을 하던 링스헬기가 추락했고, 중국 칭하이성에서 내지진이 일어나 1,000명이 사망 및 실종됐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북유럽을 긴장시키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200여명이 죽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발전은 종이 한 조각보다도 가볍다. 누가 이런 저런 일들을 예견할 수 있으며 재앙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대가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오히려 큰 재앙만 맞고 있지 않은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여기 저기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음산한 미신적 행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 짓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이 세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추를 흔드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작금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라고 역설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 꽃다운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경건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

## 나는 주님의 어릴 양

## 들어가는 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종말의 때에 최후 심판을 받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분할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마 25:31).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되 왼편의 염소는 저주를 받고 마귀와 그 쫓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마 25:41). 반면에 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 받을 자들이며, 또한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마 25:34).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 주인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양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양은 위험을 느끼는 양으로, 사망의 문턱에서 절대절명(絶對絶命)의 위기에 서 있는 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오늘도 어떤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양

양은 본래 중동지역의 짐승이라고 합니다. 또한 짙이나 밀 같은 농산물이 경작 불가능한 지역에서 주로 양들을 길렀습니다. 북유럽의 켈트족과 독일 북부의 게르만족이 로마에 들어오면서 양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양은 뿔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뿔이 있어도 자체방어나 공격을 하기에 몸집이 둔하고 겁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들끼리 싸울 때는 뿔을 사용하지만 다른 동물들만 나타나면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워낙 겁이 많아 덩치 값을 못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조하고 물과 풀이 적기 때문에 양들을 기르기에 무척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들짐승이 많았기 때문에 양은 매우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이로되 주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고 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음부의 권세는 끝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떼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마 16:18).

칼빈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기독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한속죄입니다. 넷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효과가 있는 부르심입니다. 다섯째로 성도의 보호입니다.

## 양은 목자의 인도가 필요함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양이 어떤 약점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살아왔지 않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양은 방향감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짐승이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아는데 양은 너무나도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고개를 조그만 움직이면 360도를 볼 수 있는데 양은 자기 코앞의 풀만 보고 방향 없이 다니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는 양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목전의 욕심과 유익만 바라보고 가면 바른 길을 벗어나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따라서 가고 싶은 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미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도 온전하게 갖지 못했습니다. 나를 완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로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양으로서 살아남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세상의 악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길을 걸으면 방향을 잃고 낭떨어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요 14:16).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14:17). 성령이 오셔서 주 되게 하시는 일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 제1장 역사 인식의 중요성 ①

### 오명현목사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교회 역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매주 한 페이지 정도로 연재 하고자 한다. 교회사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의 현대까지를 말한다. 교회사는 일반 역사와 중첩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땅에 가시적으로 진행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오늘부터 몇 차례는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다. 역사적 존재란 시 공간성을 초월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도 속에 존재한다. 과거는 오늘의 씨앗이며 오늘은 과거의 열매이다. 미래는 오늘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역사를 묵상해야 한다.

역사에 대한 묵상의 요구는 단순하게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 때문이 아니다. 역사는 인간이 담고 있는 사상이 입체화되어 담겨져 있다. 사상이란 과거와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사상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밝아질 수도 어두울 수도 있다. 사상은 단순한 학문으로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인간의 삶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그 사상은 역사학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사상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목회는 사상을 드러내는 수단(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사상가 토니 라인(Tony Lane)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기억이 없는 사람과 같다” 라고 하였다. 불치병에 의하여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백치라고 한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모든 과거를 상실해 버린다. 백치나 치매 환자들의 특징은 현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에 대한 분별력 상실은 오늘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만큼 사람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억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 개인의 삶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짓게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중요할진대 하물며 교회는 어떨겠는가! 마이클 그리피스(Michael Griffiths)는 지적하기를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로 부르고 있지만 현대 교회는 잣대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꼴불견의 신데렐라처럼 보인다” 라고 하였다. 또한 카이퍼(R.B. Kuiper)는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현대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곧 역사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다. 율법을 재해석한 신명기서는 단순한 율법의 재해석이 아닌 역사에 대한 해석이다. 신명기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억하라” 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경건과 현재에 대한 책임은 역사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된다. 역사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면 불경건한 삶이 되었다. 반면에 역사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면 책임 있게 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현실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흔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다. 이는 오늘을 책임 있게 살라는 교훈이다. 역사에 대한 무지는 역사에 대한 교훈을 밀어낸다. 객관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해 버린다. 목회는 과거 역사 속에 담긴 사상을 들춰내는 것이다. 사상은 한 순간에 돌출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것들과 항상 연계되어 나타난다. 오늘의 거짓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가를 찾으려면 과거의 역사를 뒤적거려야 한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

1.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목회실에서 환영 및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2. 4월 20일부터 교우들 가정 심방을 합니다. 일정은 각 가정별로 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3. 주보에 기재된 주간 나눔의 말씀을 읽고 가정 및 소그룹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4. 본 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대학 초급반 모집요강을 받으시고 전 교인들은 물론 성경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버려야함

우리가 쉽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목자의 인도가 생생하지 않고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양이 한발 내디디면 디딜수록 푸른 초장과 월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물론 때로는 넓은 초원을 미리 보고 있는 목자가 그 초원으로 인도해가려고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게도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혀 없는 인도가 아니라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양은 일정한 장소로 옮겨가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고집이 세므로 목자의 지팡이로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많은 양들을 친다는 것은 양의 특성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을 훈련시켜서 양을 몬다고 합니다. 양이 완고하면 결국 그 양은 체책을 많이 맞든지 아니면 이탈해서 죽게 됩니다. 양이 이탈하면 그것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완고함이란 어떤 한 사람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가 바라는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생의 열정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배 채우는 경우가 되기 쉽습니다.

### 첫 걸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함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 가면 우리 생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부끄럽고 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더 영적인 지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깨달아져서 거기서 오는 지혜도 생깁니다. 대개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인생을 설계하지만 거기에서는 참된 가치도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75편 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족을 모르면 어리석은 양이 됩니다. 부족을 알면 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는 순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처럼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부족하면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하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이 선한 목자의 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욕은 ‘양같은 놈’ 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설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저 개 같은 자(者)’ 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생각이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 버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염소처럼 튼튼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타처럼 빠른 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즉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양과 같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조건이 우리는 유혹해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양입니다. ■

4/19  
마 4:1-11

4/20  
마 4:1-11

4/21  
마 4:1-11

4/22  
마 4:12-17

4/23  
마 4:18-22

4/24  
마 4:23-25

**떡의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부터 방해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를 받은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훼방하는 것을 제 일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 역사 속에서 구원자가 오는 길목마다 꼭 함정을 놓았다. 사탄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유혹했다.

1.사탄의 시험(test가 아닌 temptation이다)

①인간의 본능을 충동질하고 있다(3절). ②물질의 필요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혹한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자체를 뒤흔들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충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수하에 들어오도록 유혹한다.

2.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의 말씀

①모세오경을 들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 ②생명의 근본은 떡이 아닌 말씀을 유지됨.

우리도 때때로 먹는 문제로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 그 때마다 떡에 마음을 빼앗기면 넘어진다.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명예와 능력의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

1라운드에서 실패한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덤벼들었다. 그리고 더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걸려들기를 바랐다.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사탄의 시험

①네가 능력이 있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6절) ②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앞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시험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건드리는 시험을 하고 있다. 네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유혹이었다.

2.예수님의 두 번째 승리의 말씀

①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말씀을 이용함(6절, 시91:11-12). ②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침(신6:16).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됨. 어떤 명예와 능력이 보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세상권세의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

사탄은 그 성격이 집요하다. 실패하였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훼방한다.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노린다. 그 노림이 오늘은 또 다르게 온다.

1.사탄의 시험

①사탄은 천하 만국과 영화를 주님께 보여주었다(8절). ②그리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했다(9절).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보여주며 타협과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사탄은 적당하게 하라고 유혹한다. 올인하는 신앙을 가장 싫어한다.

2.예수님의 세 번째 승리의 말씀

①사탄의 주제넘은 생각을 먼저 알고 계셨다. ②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10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롬13:1). 그럼에도 사탄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마6:24). 하나님을 가장 우선 되어 사랑하는 신앙을 주님은 바라신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인 말씀 밖에 없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그리스도**

주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당신의 사역을 시행하셨다. 그리스도의 첫 사역은 다음과 같다.

1.갈릴리로 물러가신 그리스도의 행적

①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함(요1:29, 36). ②아직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심(마4:12). ③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심(요2:11)

2.갈릴리에서의 첫 사역

①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취는 빛이셨다(요1:9). ②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소외된 땅의 사람들이었다(마4:13-16). ③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심(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천국을 받 아들였다. 천국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도 천국을 전파하는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제자를 부르신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께서 갈릴리지역에서 제자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으며 제자로서의 첫 출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1.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

①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심(18,21절)

②당시 사회의 하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다.

2.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자세

①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심(19절)

②그들은 그물을 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고(20절),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다(22절).

주님을 따를 때 사명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사명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 자세는 “곧”이다. 사명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오늘 즉시 순종하는 발걸음을 주님은 원하신다.

**능력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주님은 그 첫 사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셨다. 그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오셨음을 알리셨다. 그 알심의 방식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1.주님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

①주님은 가르치셨다(teaching,23절). 주님은 구약 시대의 산물인 회당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서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②주님은 전파하셨다(proclaiming,23절).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다. 선포는 일종의 선언이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된다.

③주님은 고쳐주셨다(healing,23절). 영혼의 병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역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지금도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때로는 엄하게 선포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고통과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길 아래 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